

● 그레이스 푸(Grace Fu)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(Ministry of Sustainability and the Environment) 장관은 <공공환경보건법(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)> 개정안이 10월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

● 푸 장관은 이번 개정이 미래의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현재의 유행병과 Dengue에 대응하여 싱가포르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힘

● 해당 개정안에는 정기 청소(routine cleaning)와 소독을 위한 정밀 청소(deep cleaning) 주기를 규정하는 '의무 청소 기준'이 포함됨

● 푸 장관은 개정법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, 이용자 수가 많고 취약 계층의 사용 빈도가 높은 장소부터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. 또한, 특정 위생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나타내는 SG CLEAN* 품질 마크를 획득한 건물 수에 대한 업데이트 된 정보도 언급함

* SG CLEAN : 싱가포르의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부문별 위생 기준을 준수한 장소에 부여하는 마크

● 푸 장관은 공중환경의 "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며, 정부나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결을 유지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"고 밝힘